

2026. 6. 26.(금)

회 원 조 사 팀

2026년 안산기업 하계 휴무 계획 조사

목 차

I . 조사 개요 2

II . 조사 결과 3

1. 하계 휴무 계획 3

2. 상여금 및 현물 지급 계획 6

3. 기타 조사 8

I 조사 개요

□ 조사 목적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의 하계휴무 계획 및 기타 경영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및 개별기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

□ 분석 대상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

□ 조사 기간

- 2026년 6월 8일(월) ~ 6월 19일(금)

□ 조사 방법

- 온라인 조사
- 이메일, 팩스 조사

□ 조사 내용

- 하계휴무 계획
- 특별상여금 및 현물 지급 계획
- 현시점 「미국-이란 군사 충돌」에 따른 피해 여부

□ 응답 현황

구 분		응 답 수	응답비율
기업 규모	50인 미만	62개사	54.4%
	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5개사	21.9%
	100인 이상	27개사	23.7%
합 계		114개사	100.0%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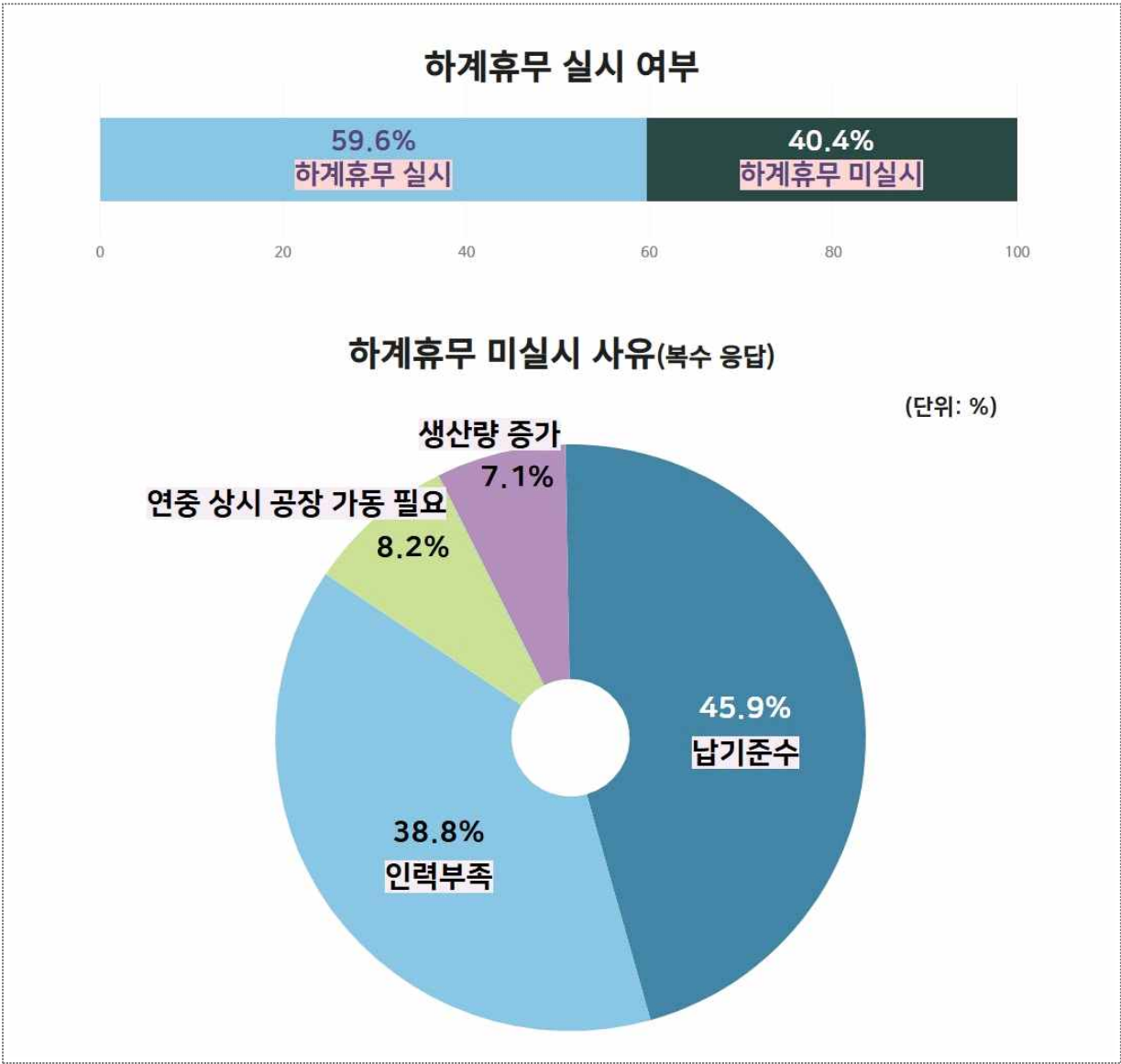
조사 결과

1. 하계휴무 계획

□ 하계휴무 여부

○ 안산지역 기업의 59.6%는 ‘하계휴무를 실시’ 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40.4%는 ‘납기 준수’ 등의 이유로 ‘하계휴무 실시하지 않는다’ 라고 응답.

○ 하계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‘납기 준수’가 4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‘인력 부족(38.8%)’, ‘연중 상시 공장 가동 필요(8.2%)’, ‘생산량 증가(7.1%)’ 순으로 응답. (복수 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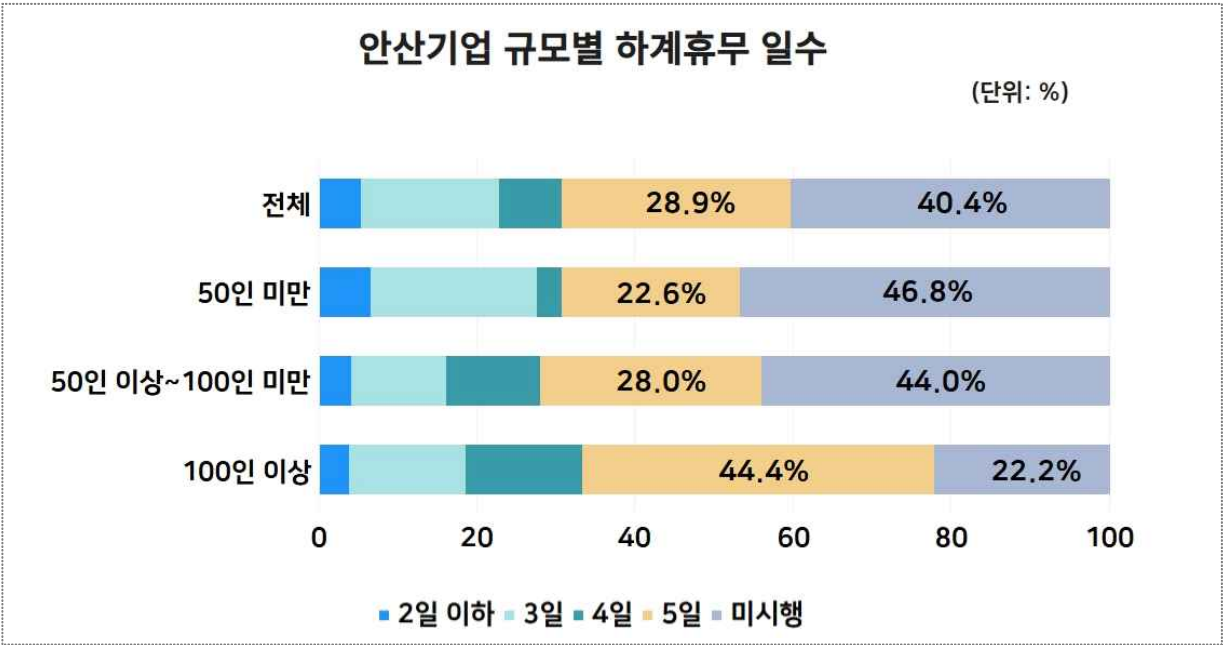
□ 하계휴무 기간

- 안산지역 기업의 평균 하계휴무 일수는 4일로 나타남.
 - 하계휴무 형태는 ‘전 직원 일괄 휴무(64.7%)’ , ‘일정 휴무 기간 내 분산 휴무(35.3%)’
 - 하계휴무 운영 방식은 ‘연·월차 사용(52.9%)’ , ‘특별유급 휴가 지급(33.8%)’ , ‘연·월차와 특별유급 휴가 병행(11.8%)’ , ‘기타(1.5%)’ 순으로 응답.
 - 기타(1개사): ‘사무직 개별연차 사용, 현장직 특별유급 휴가 3일 부여’
- 안산기업 규모별 하계휴무 일수를 살펴보면, 하계휴무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 ‘5일’ 이 28.9%로 가장 많았으며, ‘3일(17.5%)’ , ‘4일(7.9%)’ , ‘2일 이하(5.3%)’ 순으로 응답.
 - 50인 미만 기업은 하계휴무 일수로 ‘5일’ 을 22.6%로 가장 많이 응답.
 - 50인 이상 ~ 100인 미만 기업은 하계휴무 일수로 ‘5일’ 을 28.0%로 가장 많이 응답.
 - 100인 이상 기업은 하계휴무 일수로 ‘5일’ 을 44.4%로 가장 많이 응답.

안산기업 규모별 하계 휴무 일수

구 분	2일 이하	3일	4일	5일	미시행	합계
전 체	5.3%	17.5%	7.9%	28.9%	40.4%	100.0%
50인 미만	6.5%	21.0%	3.2%	22.6%	46.8%	100.0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4.0%	12.0%	12.0%	28.0%	44.0%	100.0%
100인 이상	3.7%	14.8%	14.8%	44.4%	22.2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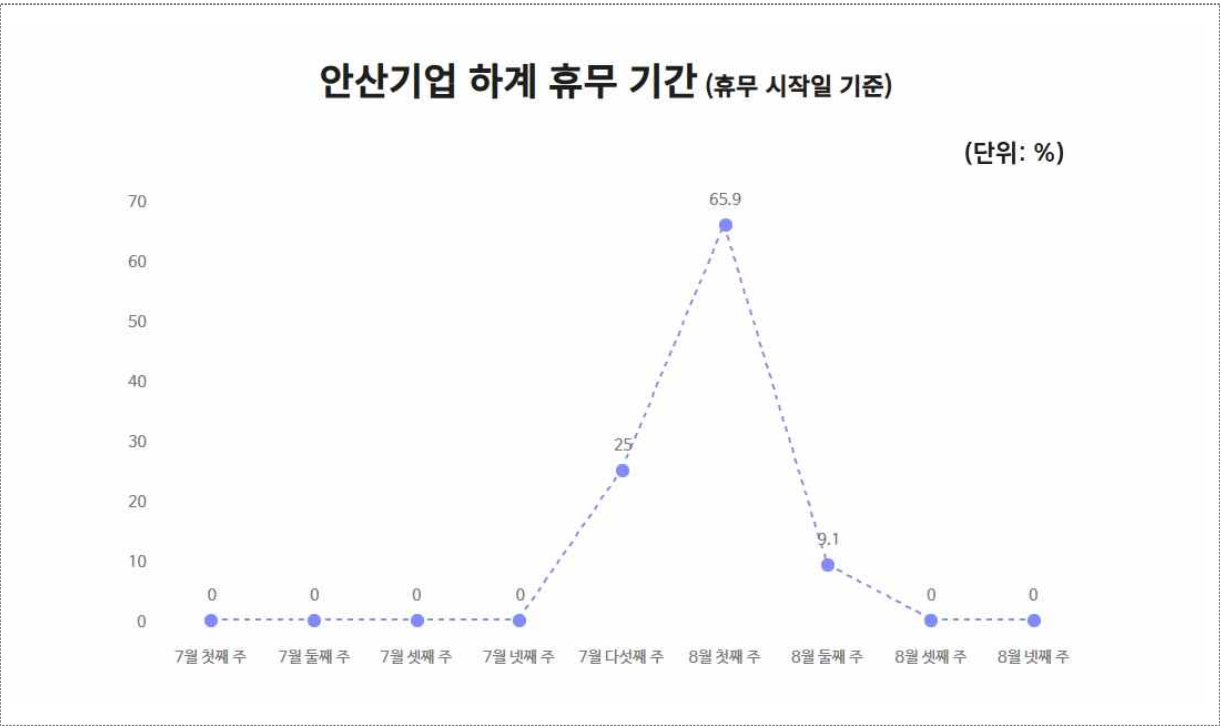
※ 휴일(주말) 제외
※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, ±0.1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



- 하계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81.4%는 ‘주요 거래처의 휴무 일정을 고려’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18.6%는 ‘주요 거래처의 휴무 일정을 고려하지 않음’이라고 응답.
- ‘전 직원 일괄 휴무’로 응답한 기업들의 하계휴무 기간은 ‘8월 첫째 주’가 65.9%로 가장 많았으며, ‘7월 다섯째 주(25.0%)’, ‘8월 둘째 주(9.1%)’ 순으로 응답.

안산기업 하계 휴무 기간 (휴무 시작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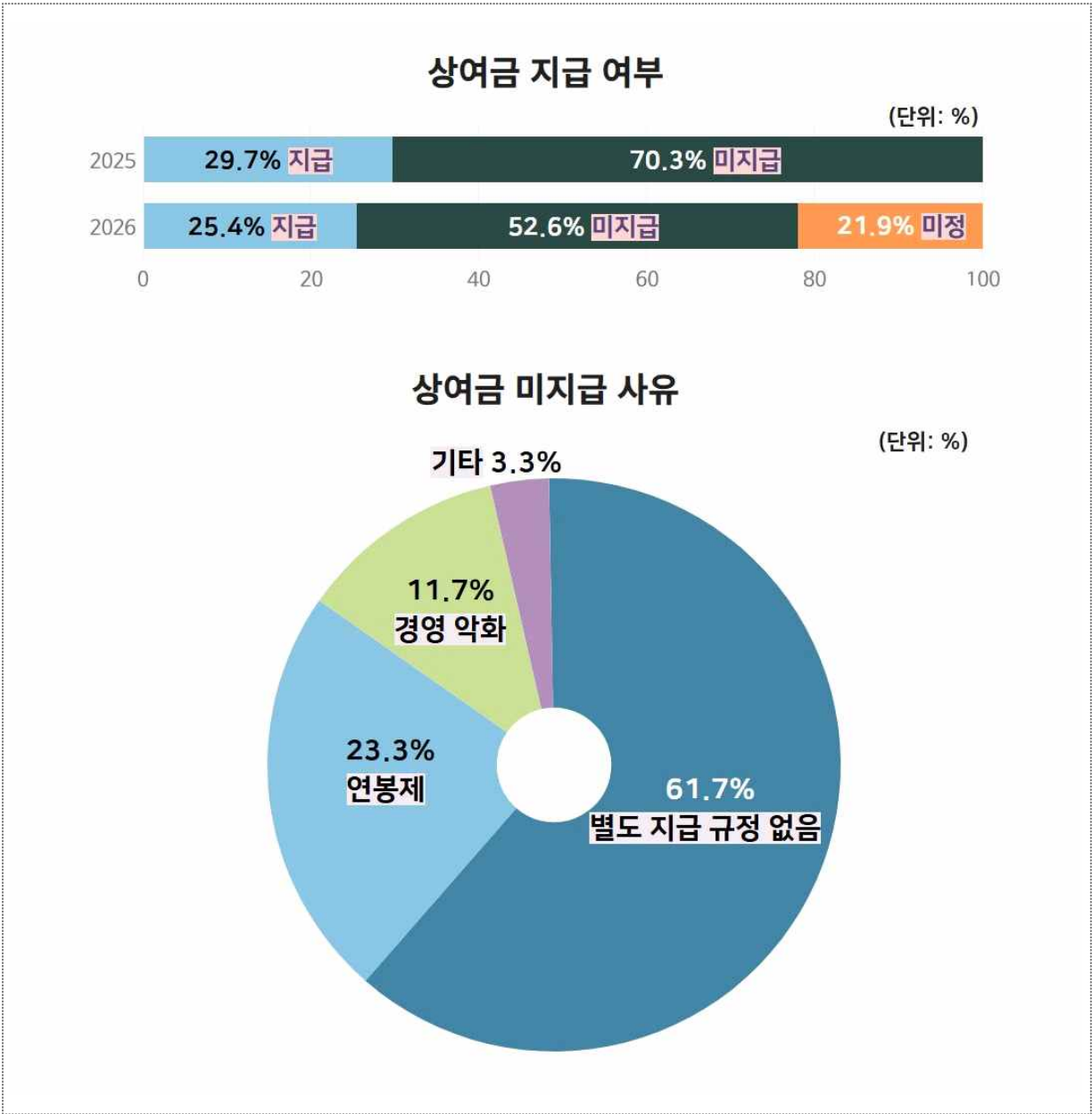
기 간	응 답	기 간	응 답
7월 첫째 주 7/1(수) ~ 7/4(토)	-	8월 첫째 주 8/2(일) ~ 8/8(토)	65.9%
7월 둘째 주 7/5(일) ~ 7/11(토)	-	8월 둘째 주 8/9(일) ~ 8/15(토)	9.1%
7월 셋째 주 7/12(일) ~ 7/18(토)	-	8월 셋째 주 8/16(일) ~ 8/22(토)	-
7월 넷째 주 7/19(일) ~ 7/25(토)	-	8월 넷째 주 8/23(일) ~ 8/29(토)	-
7월 다섯째 주 7/26(일) ~ 8/1(토)	25.0%	합 계	100%(44개사)



2. 상여금 및 현물 지급 계획

□ 상여금 지급 형태

- 안산지역 기업 중 정기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2.8%로 조사되었으며, 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.6%, 미지급 예정 기업은 52.6%, 미정은 21.9%로 나타났다.
- 미지급의 가장 큰 이유로는 ‘별도 지급 규정 없음’ 이 61.7%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‘연봉제(23.3%)’, ‘경영 악화(11.7%)’, ‘기타(3.3%)’ 순
 - 기타(2개사): ‘별도 성과 평가 연동 인센티브제 운영(1개사)’, ‘급여 책정 시 상여금 전액을 지급화 또는 연봉 포함(1개사)’



- 정기상여금 지급 기업 중 ‘기본급 대비 50% 미만’ 이 50.0%로 가장 많고, 이어 ‘기본급 대비 50% 이상 100% 미만(30.8%)’ , ‘일정 금액(11.5%)’ , ‘기본급 대비 100% 이상 (7.7%)’ 순으로 응답.

안산지역 기업 정기상여금 지급 수준

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 100% 미만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 금액
50.0%	30.8%	7.7%	11.5% (평균 53만원)

※일정 금액 지급의 경우 40만원(1개사), 50만원(1개사), 70만원(1개사) 응답

- 특별상여금 지급 기업 중 ‘일정 금액 지급’ 이 66.7%로 가장 많고, 이어 ‘기본급 대비 50% 미만(33.3%)’ 순으로 응답.

안산지역 기업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 100% 미만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 금액
33.3%	-	-	66.7% (평균 65만원)

※일정 금액 지급의 경우 30만원(1개사), 100만원(1개사) 응답

□ 현물 지급 여부

- 안산지역 기업 중 현물 지급 예정인 기업은 3.5%(4개사), 현물 미지급 예정인 기업은 96.5%(110개사)로 나타났다.

- 현물 지급 시 현물 가액은 아래 표 참고.

구 분	현물 가액	(참고) 상여 지급 여부		비고
A사	500,000원	미정	-	현물 지급, 상여 미정
B사	400,000원	정기상여금 지급	기본급 대비 50% 이상 100% 미만	현물, 정기상여 동시 지급
C사	300,000원	특별상여금 지급	일정액: 300,000원	현물, 특별상여 동시 지급
D사	30,000원	상여 미지급	-	현물 지급, 상여 미지급

3. 기타 조사

□ 현시점 기준 「미국-이란 군사 충돌」에 따른 기업경영 영향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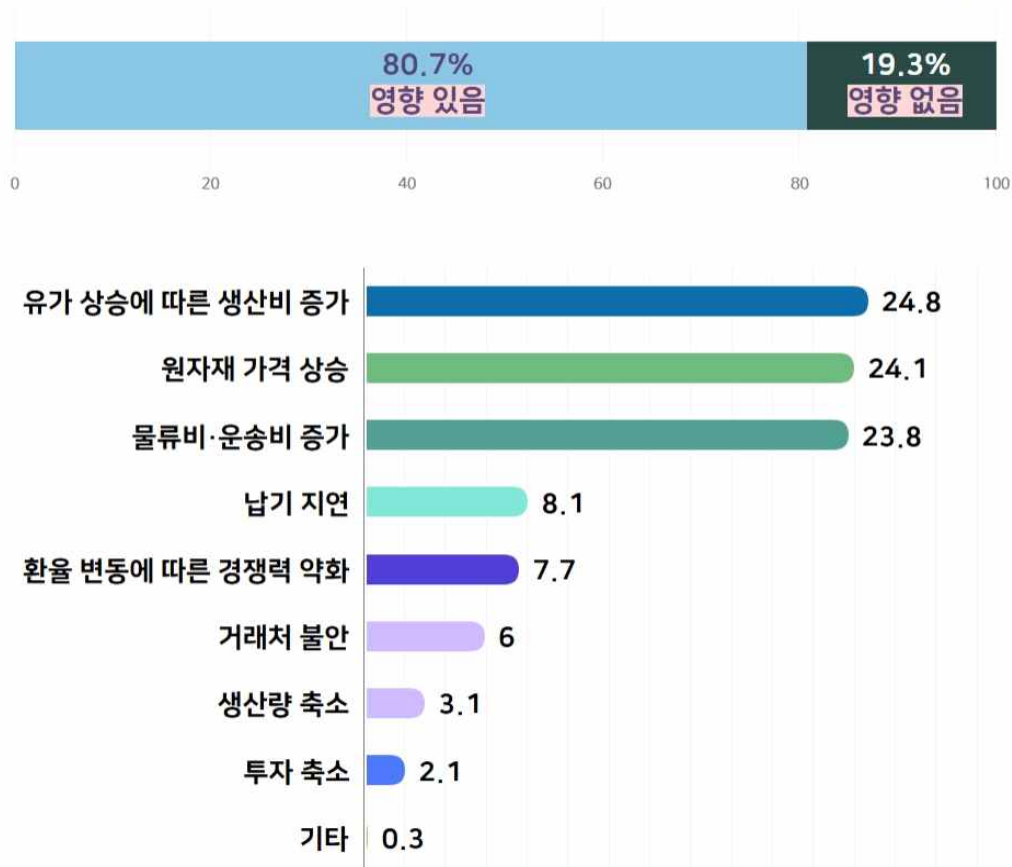
- 응답 기업의 80.7%(92개사)는 미국-이란 군사 충돌이 기업경영에 ‘영향이 있다’ 라고 응답(발생 직후 대비 △6.0%p 감소)하였으며, 19.3%(22개사)가 ‘영향이 없다’ 라고 응답.

□ 현시점 기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

- 미국-이란 군사 충돌로 인한 기업경영 영향으로 ‘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증가’ 라는 응답이 24.8%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‘원자재 가격 상승(24.1%)’, ‘물류비·운송비 증가(23.8%)’, ‘납기 지연(8.1%)’, ‘환율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(7.7%)’, ‘거래처 불안(6.0%)’, ‘생산량 축소(3.1%)’, ‘투자 축소(2.1%)’, ‘기타(0.3%)’ 순으로 응답. (복수 응답)
 - 기타 의견: ‘원자재 수급 불안정(1개사)’

현시점 기준 「미국-이란 군사 충돌」에 따른 기업경영 영향

(단위: %)



□ 현시점 기준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영향 여부

○ 미국-이란 군사 충돌로 인하여 현시점 기준 올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, ‘매출 감소’를 예상한 기업이 78.3%(72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‘영향 없음’은 19.6%(18개사), ‘오히려 매출 증가를 예상’한 기업은 2.2%(2개사)로 조사되었다.

○ 한편,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, ‘영업이익 감소’를 예상한 기업이 85.9%(79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‘영향 없음’은 11.9%(11개사), ‘오히려 매출 증가를 예상’한 기업은 2.2%(2개사)로 나타났다.

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영향 여부

구 분		감소 예상		영향 없음		오히려 증가 예상	
매출	군사 충돌 직후	82.7%	▼4.4%p	16.3%	▲3.3%p	1.0%	▲1.2%p
	현시점	78.3%		19.6%		2.2%	
영업 이익	군사 충돌 직후	79.8%	▲6.1%p	20.2%	▼8.3%p	0.0%	▲2.2%p
	현 시점	85.9%		11.9%		2.2%	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‘매출 증가를 예상’ 하는 경우 ‘전년 대비 20% 증가(1개사)’, ‘전년 대비 3% 증가(1개사)’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, ‘매출 감소를 예상’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매출 감소 예상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.

매출 감소 예상 규모	군사충돌 직후	현시점	증감 (단위: %p)
5% 미만	17.6%(15개사)	9.9%(7개사)	▼7.7
5% 이상 10% 미만	22.4%(19개사)	14.1%(10개사)	▼8.3
10% 이상 20% 미만	20.0%(17개사)	53.5%(38개사)	▲33.5
20% 이상	40.0%(34개사)	22.5%(16개사)	▼17.5
합 계	100%(85개사)	100%(71개사)	

※ 기타 응답: 전년 대비 비교는 관세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으며, 정상적 기준 매출 대비 50% 감소(1개사, 상기 통계에서 제외)

○ ‘영업이익 증가를 예상’ 하는 경우 ‘전년 대비 2.5% 증가(1개사)’, ‘전년 대비 1.5% 증가(1개사)’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, ‘영업이익 감소를 예상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예상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.

영업이익 감소 예상 규모	군사충돌 직후	현시점	증감 (단위: %p)
5% 미만	4.9%(4개사)	14.1%(11개사)	▲9.2
5% 이상 10% 미만	29.6%(24개사)	17.9%(14개사)	▼11.7
10% 이상 20% 미만	38.3%(31개사)	44.9%(35개사)	▲6.6
20% 이상	27.2%(22개사)	23.1%(18개사)	▼4.1
합 계	100%(81개사)	100%(78개사)	

※ 기타 응답: 전년 대비 비교는 관세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으며, 정상적 기준 영업이익 대비 80% 감소 (1개사, 상기 통계에서 제외)

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【T. 031-410-3030 (247)】 으로 연락바랍니다.

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○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
○ 발행일: 2026. 6. 26.

[비매품]